

어린이들 숙제·문제집 풀기 큰 부담 느낀다

대전시교육연구원 32개 국교 960명 대상 조사 결과 밝혀

어린이들은 많은 숙제나 문제집 풀기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, 방과 후에도 숙제를 하거나 학원에 가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 같은 사실은 대전시교육연구원이 최근, 대전 시내 32개 국민 학교 4·5·6학년 어린이 960명을 대상으로 가정과 학교 생활 등 5개 부문에 걸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.

조사 결과 어린이들은 가장 큰 고민으로 많은 숙제와 문제집 풀기(21.9%)를 꼽았으며, 그 다음으로는 부모의 건강(17.4%), 자신의 건강

(14.7%), 얼굴·외모(13.2%) 등의 순으로 대답했다.

방과 후 어린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숙제(33.9%)와

학원 가기(26.5%) 등으로 보내는 데 비해 친구들과 놀거나(10%), 텔레비전을 보는(8.5%)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.



또 학교 생활 중 가장 괴로울 때는 놀림이나 따돌림을 당할 때가 29.9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성적이 나쁠 때(29.1%), 선생님께서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을 때(13.3%), 친구들과 싸웠을 때(12.6%) 순으로 대답했다.

소년2세 <대전지사>
94.9.23

로 밝혀졌다.
학원 가기 등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
어린이들은 대부분 방과 후 많은 숙제와
◇놀이를 즐기고 있는 어린이들. 어